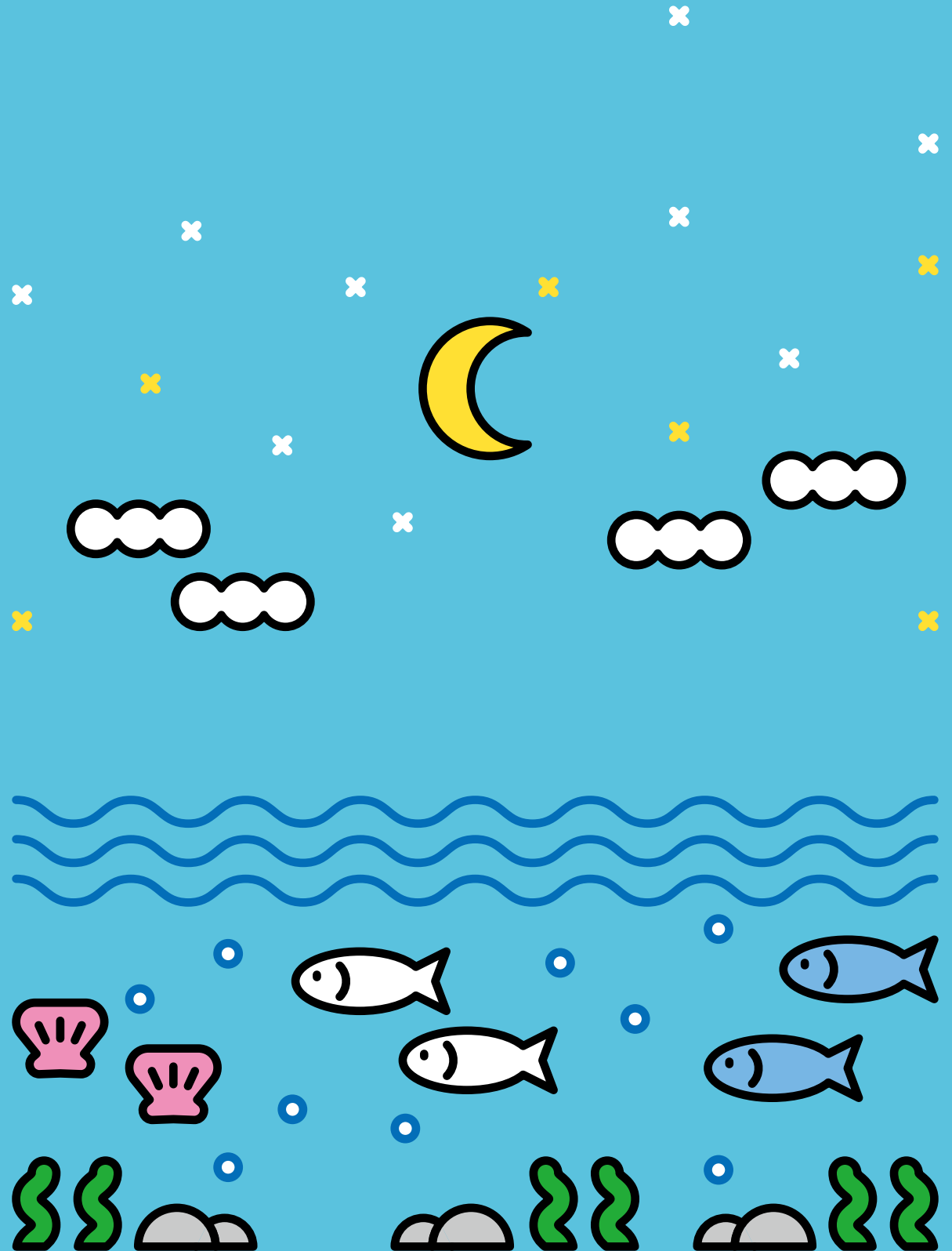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박물관 x 전시 x 소장품 백배 즐기기

박물관 똑똑똑! 바다 툽툽툽!



이 안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국립해양박물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동반 보호자를 위한 박물관 활용 백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의 원형이 되는
 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고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안내합니다.
 또한, 활동지를 활용하여 박물관 방문 전후에 전시와 연계한
 학습활동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박물관 구석구석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박물관 즐겁게 즐기는 방법!



탐색하기

어린이박물관
 체험 내용과 관련된
 상설전시실 위치를
 안내합니다.



생각나누기

상설전시실에서
 실물 전시품을 본 후
 어린이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더알아보기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소장품의 정보를
 쉬운 해설로
 만나보세요.

어린이와 약속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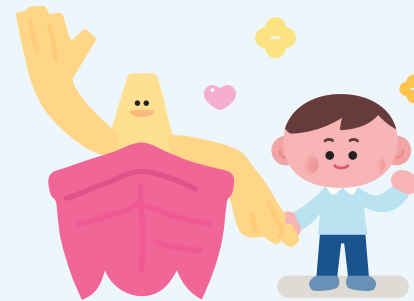


어린이박물관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 체험하는 곳이에요.
 소곤소곤 말하고 사뿐사뿐 걸어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물입니다.
 전시품을 소중히 다루주세요.

어린이와 이렇게 함께해 주세요!



어린이 체험 활동에 부모님이 함께하면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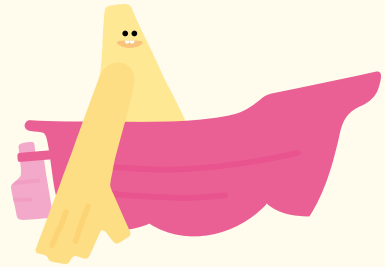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질서를 지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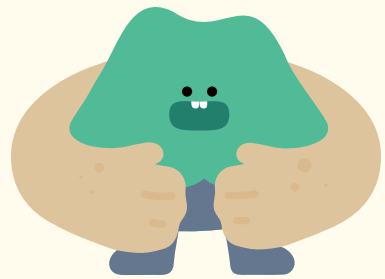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오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을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바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을 떠나보세요!



뿌뿌와 함께 '바다로 모험을 떠나요'

1부에서는 바다 탐험가가 되어 선박 안에서 다양한 항해도구를
직접 조작하고, 거대한 대형 문어 친구를 따라 바닷속 숨겨진
괴물 이야기, 과거 탐험가들의 항해기를 만나보세요.



둥둥이와 함께 '바다와 더불어 살아요'

2부에서는 우리 가까이 살아 숨 쉬는 바다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해양예술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양문화유산을 학습해 보세요.



랑랑이와 함께 '바다로 내일을 꿈꿔요'

3부에서는 해양생물보호종, 기후위기, 바다숲, 해저도시 등
우리가 가꾸고 함께 해야 할 미래의 바다를 탐색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바다에게 나만의 메시지를 띄워보세요!

어린이박물관 핵심만 쓱쓱!



1부 바다로 모험을 떠나요

세계를 누비는
바다 탐험가

별로
바닷길 찾기

신비한
세계일주 항해기

나는야
해도 제작자

2부 바다와 더불어 살아요

아름다운
우리 바다 보물

국가중요
어업유산

3부 바다로 내일을 꿈꿔요

미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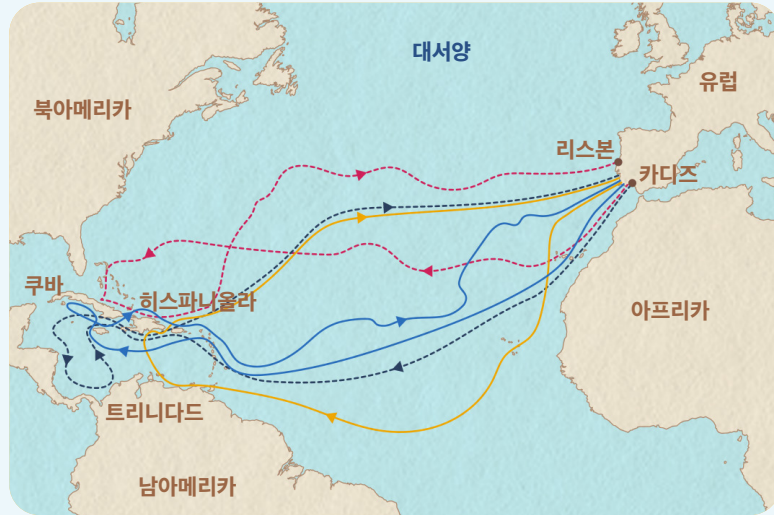
세계를 누비는 바다 탐험가



《세계를 누비는 바다 탐험가》는 큰 배를 타고 세계의 바다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으로 나아갔던 대표적인 탐험가들의 선박과 항해 경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탈리아, 1451-1506



새로운 대양 항로를 개척한 바다 탐험가

콜럼버스는 향신료가 풍부한 인도로 가는 빠른 길을 개척하기 위해 1492년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스페인을 출발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를 인도로 착각한 콜럼버스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차 1492~1493
- 2차 1493~1496
- 3차 1498~1500
- 4차 1502~1504



페르디난드 마젤란
포르투갈, 1480-1521



최초로 세계일주를 한 바다 탐험가

마젤란은 1519년 아시아에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빅토리아호를 타고 스페인을 출발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남단의 좁고 긴 해협을 지나며 '마젤란 해협'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라틴어로 '평온한 바다'라는 뜻의 'Mare Pacificum'이라 불렀습니다. 마젤란의 탐험대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마침내 세계일주 항해를 완수했습니다. 마젤란의 탐험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쿡
영국, 1728-1779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지역을 발견하고 지도로 남긴 탐험가

제임스 쿡은 영국 해군 선장으로 총 3차례 항해를 떠났습니다. 1차 항해에서 남태평양 타히티섬에서 금성의 태양 통과 현상을 관측하였고, 새로운 대륙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발견했습니다. 2차 항해에서 남극대륙을 찾기 위해 남태평양과 남극해를 탐험했습니다. 3차 항해에서 북극으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제임스 쿡의 항해는 하와이 제도를 발견하고 세계지도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1차 1768~1771
- 2차 1772~1775
- 3차 1776~1779



프리쵸프 난센
노르웨이, 1861-1930



북극을 탐험한 바다 동물학자이자 탐험가

1893년 난센은 프람호를 타고 북극점 탐험을 떠났습니다. 프람호는 빙하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난센이 직접 설계한 선박입니다. 프람호를 이용해 북극 대륙에 도착한 난센은 개 썰매를 이용해 북극점으로 이동했지만 식량 부족으로 북극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프람호는 아문센의 남극 탐험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난센의 모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 북극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로알 아문센
노르웨이, 1872-1928



남극과 북극 모두를 탐험한 바다 탐험가

1906년 아문센은 노르웨이에서 알래스카로 가는 북서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후 1911년 프리쵸프 난센이 만든 프람호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문센은 남극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원주민들이 털옷을 입고, 스키와 개 썰매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1926년에는 비행선을 타고 북극점을 하늘에서 횡단했습니다.

아문센은 남극점과 북극점 모두를 탐험한 인류 최초의 인물입니다.



잔느 바레
프랑스, 1740-1807



세계일주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탐험가

잔느 바레는 1766년 프랑스 과학 탐사 항해에 참여한 여성 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인 필리베르 코메르송의 조력자로 약 2년 동안 남장으로 성별을 숨긴 채 항해에 참여했습니다.

잔느 바레는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타히티, 모리셔스 등 여러 지역을 탐험하며 6,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 표본을 채집했고 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탐색하기

대항해시대 탐험가,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선박을 4층 항해관 (항해의 시대)에서 확인해보세요.



생각 나누기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본 적이 있나요?



더 알아보기





별로 바닷길 찾기: 북극성과 사분의



먼 바다를 항해했던 초기에는 캄캄한 밤 바다 위에서 어떻게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었을까요? 《별로 바닷길 찾기》에서는 과거 항해에 사용된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19년 포르투갈 항해연구소에서 북극성을 활용한 항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북극성은 북반구*의 북쪽 하늘에 항상 떠 있어서 항해가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별입니다. 항해하는 동안 북극성의 높이를 측정하여, 현재 위치와 선박의 이동거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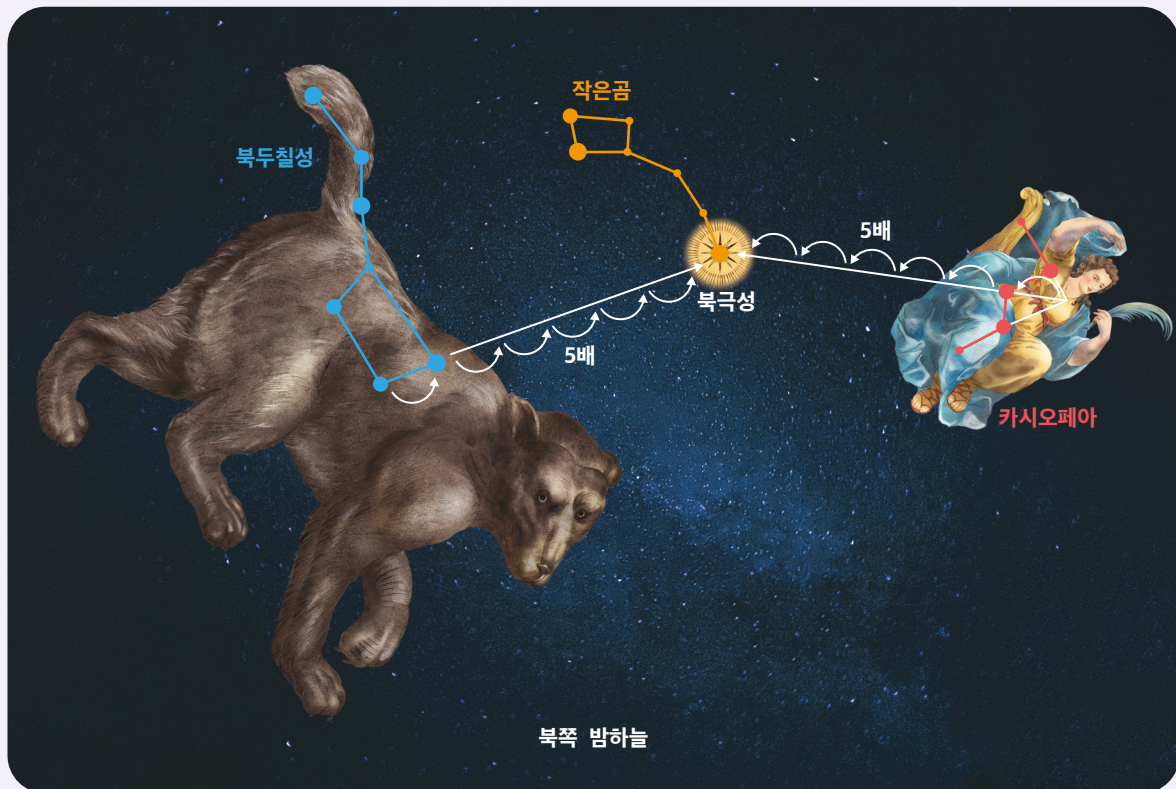
어린이박물관에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아보세요.

사분의 체험 전시물 근처에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가장 반짝이는 별이 보이나요?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이예요!

북극성은 작은곰 별자리의 꼬리 부분에 위치한 별입니다.

북극성 위치 알아보기!



항해가들이 남반구*에서 북극성을 볼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매일 정오의 태양 높이를 측정하고 위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태양, 별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사분의'를 발명했습니다.

*북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북쪽 절반

*남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남쪽 절반

*위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

사분의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탐색하기

사분의를 4층 항해관 (바다의 길잡이)에서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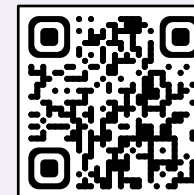


생각 나누기

왜 북극성이 항해가들의 기준점이 되었을까요?



더 알아보기





신비한 세계일주 항해기



《신비한 세계일주 항해기》는 서양의 탐험가들이 바다를 건너 낯선 땅을 밟고, 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긴 항해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 체험담을 루스티첼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으로 1271년~1295년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지중해와 사막을 지나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중국에서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도중 몽골의 공주 코카친을 이란 호르무즈로 데려다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동양의 문화와 생활 등 다양한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대항해시대 탐험가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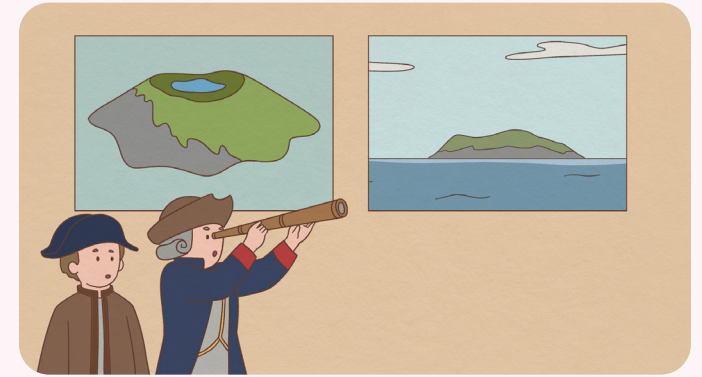
제임스 쿡의 항해기



제임스 쿡 선장은 타히티, 뉴질랜드, 호주, 하와이 등 수많은 섬들을 최초로 발견한 탐험가입니다. 항해에 후원해 준 샌드위치 백작에게 보답의 의미로 하와이를 샌드위치 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쿡 선장의 항해기에는 정밀한 항로와 지도 외에도 원주민 사회의 생생한 묘사, 식물·동물·기후에 관한 관찰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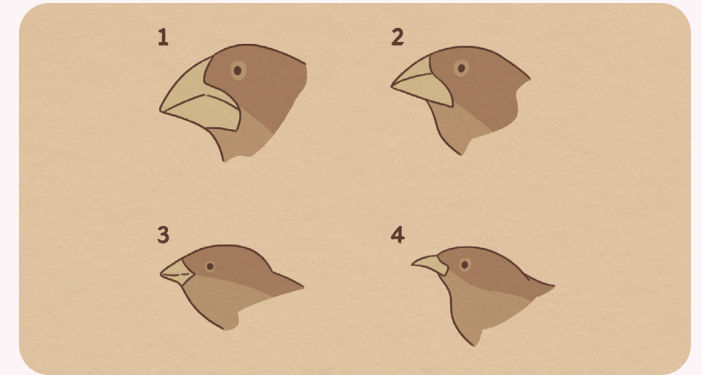
라페루즈의 세계일주 항해기



라페루즈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약 3년간 아메리카 북부, 아시아 대륙 등을 탐험했습니다. 밀레-뤼로라는 사람이 편집하여 라페루즈 세계일주 항해기로 출판했습니다. 서양인 최초로 울릉도를 발견하였고,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다즐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해안을 실측한 해도와 지도가 담겨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박물학자인 찰스 다윈은 비글호 선박을 타고 남미의 갈라파고스 제도 등을 탐험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자연환경에 따라 땅 위의 동물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태평양의 섬을 항해하면서 다양한 생물과 지질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적 지식을 넓히고 진화론의 기초를 마련 하였습니다.



탐색하기

제임스 쿡 항해기와 라페루즈 항해기를 4층 항해관 (바다의 길잡이)에서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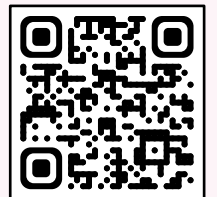


생각 나누기

최근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해본 일이 있나요?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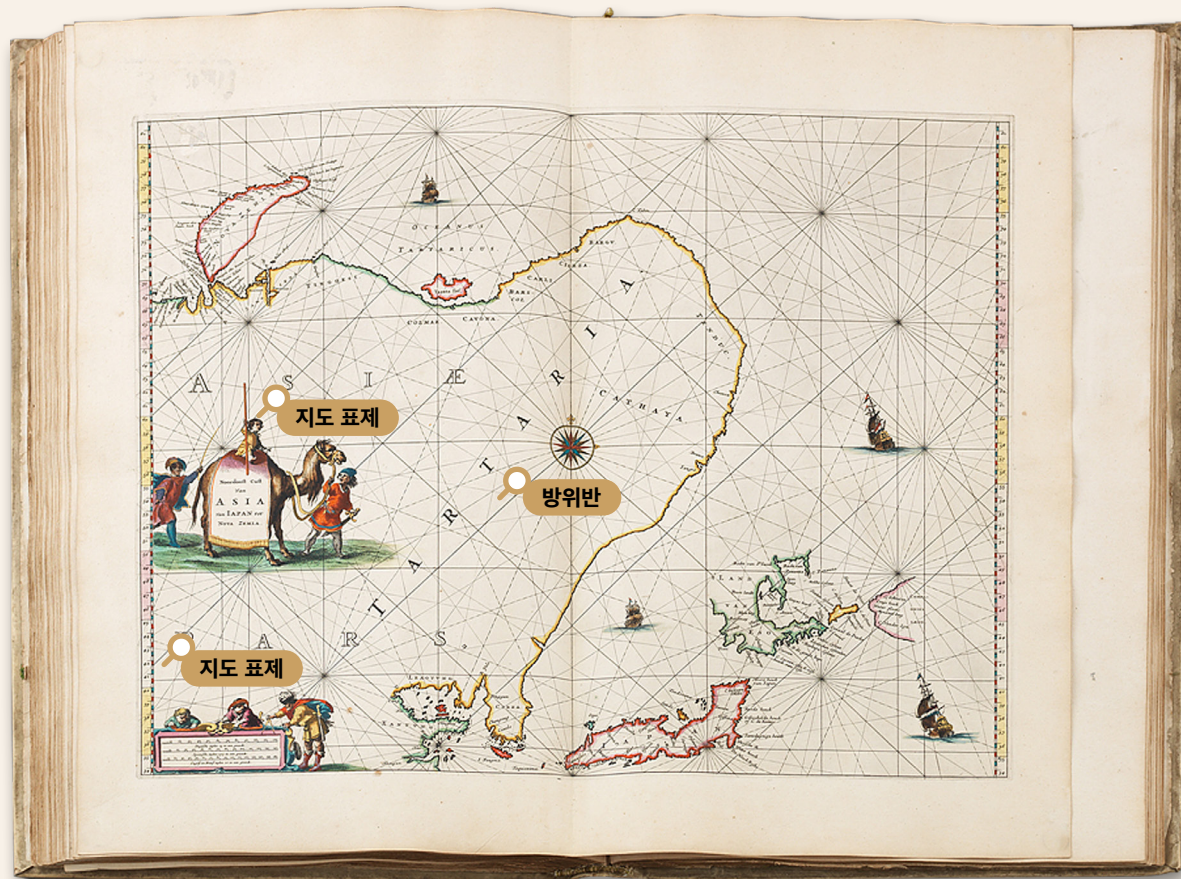


나는야 해도 제작자



《나는야 해도 제작자》에서는 해도의 표제, 방위, 선박, 동식물, 인물 등의 표현 요소를 살펴보고, “나만의 해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해도’는 선박이 항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바다 깊이, 뱃길, 암초 위치 등)를 표시한 항해용 지도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620년대를 기점으로 원거리 항해를 위한 안내도와 해도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17세기에 제작된 해도에는 일반적인 지리 정보와 함께 다양한 상징과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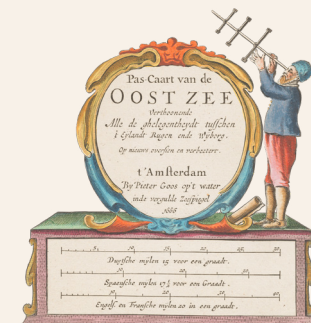
피터 구스의 해도첩(1666년)



지도 표제

지도 표제란 지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장식을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카르투슈(Cartouche)라고 부릅니다. 지도의 제목, 제작자, 제작 연도, 발행 장소 등의 주요 정보가 사각형, 타원형의 모양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동식물, 인물 등 신화적인 내용이 그림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도에는 유럽인이 아시아로 항해할 때 기대했던 풍요로움과 무역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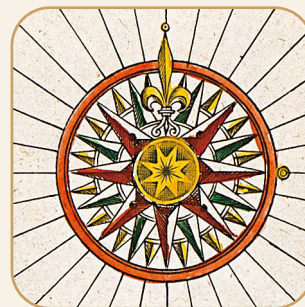
다양한 지도 표제 알아보기



방위반

주로 항해용 지도에서 방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식입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방위(표식)를 중심으로 16방 혹은 32방의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선을 그렸습니다.

다양한 방위반 알아보기



탐색하기

세계 첫 해도첩인 더들리의 바다의 신비를 4층 항해관 (바다의 길잡이)에서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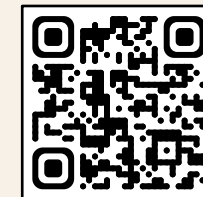


생각 나누기

나는 현재 길을 어떻게 찾아가나요? 박물관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볼까요?



더 알아보기





아름다운 우리 바다 보물



《아름다운 우리 바다 보물》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대표하는 해양예술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로부터 재료를 얻고 바다를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해양 예술품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나전칠 국화모란닝쿨무늬 상자



나전칠 국화모란닝쿨무늬 상자는 나전 공예로 국화, 모란, ningkul무늬를 새긴 상자입니다. 나전칠은 전복, 조개, 소라 등 바다에서 나는 패각류 껍데기를 얇게 갈아 여러가지 무늬로 오려내어 나무로 만든 가구 또는 물건 표면에 박아 넣거나 붙이고 옷칠을 하는 장식 기법을 일컬으며, '자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삼국 중 나전 공예가 가장 발달하였으며,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해주항아리



해주항아리는 황해도 해주지방에서 만들던 항아리를 말합니다. 물고기 문양은 예부터 토기, 도자기, 그림 등에 오랫동안 등장해온 친숙한 소재입니다.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으므로 다산과 자손 번성을 의미하며,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엇갈린 모습은 부부 금슬과 화목을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물고기는 풍요와 건강,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전칠 국화모란닝쿨무늬 상자



해주항아리



탐색하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인 나전칠 국화모란닝쿨무늬 상자를 3층 해양관 《예술 속 우리 바다》에서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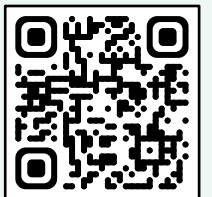


생각 나누기

우리 주변에 바다에서 온 재료로 장식된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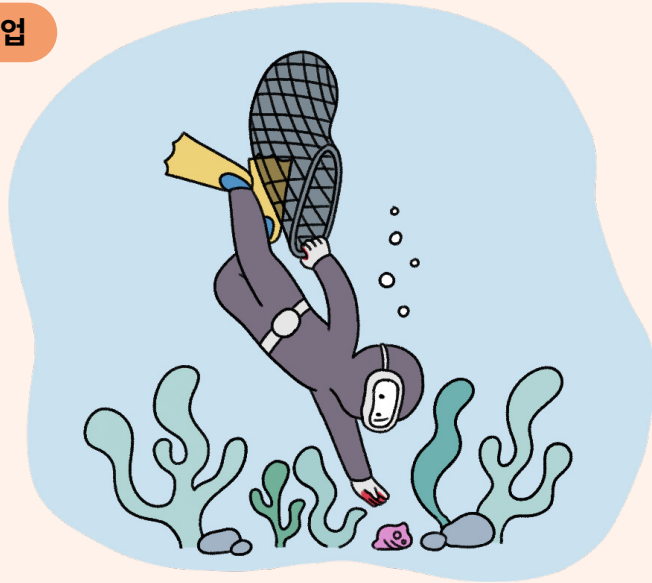
어촌의 숨은 가치, 국가중요어업유산



《어부와 심심바다밥상》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우리 전통어업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동적인 유산입니다.

제1호 제주 해녀어업

2015년 지정



해녀어업은 기계장치 없이 맨 몸으로 바닷속에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입니다. 해녀는 10m 이내 깊이의 바다에서 1분 동안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해산물을 잡아오는 것이 해녀들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강인한 삶을 보여주는 점, 생물을 과도하게 채취하지 않아 해양 생태계를 배려하는 점, 고유의 공동체 정신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16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2017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2023년) 등재로도 이어졌습니다.



탐색하기

해녀어업 도구를 3층 해양관
(우리 삶 속 바다)에서
만나보세요.



생각 나누기

숨을 참고 물 속에
잠수해 본 적이 있나요?



더 알아보기



제2호 보성 빨배어업

2015년 지정



빨배어업은 빨배를 이용해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어업 방식을 말합니다. 빨배는 썰물 때 갯벌에서 바지락이나 꼬막 등을 채취하기 위해 제작된 1인용 배입니다. 널, 널매, 빨배, 널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얇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갯벌 특성으로 인해 빨배는 어업활동 이동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녀와 테왁 망사리



빨배어업 광경



탐색하기

전통어업 도구 빨배를
3층 해양관
(우리 삶 속 바다)에서
만나보세요.



생각 나누기

갯벌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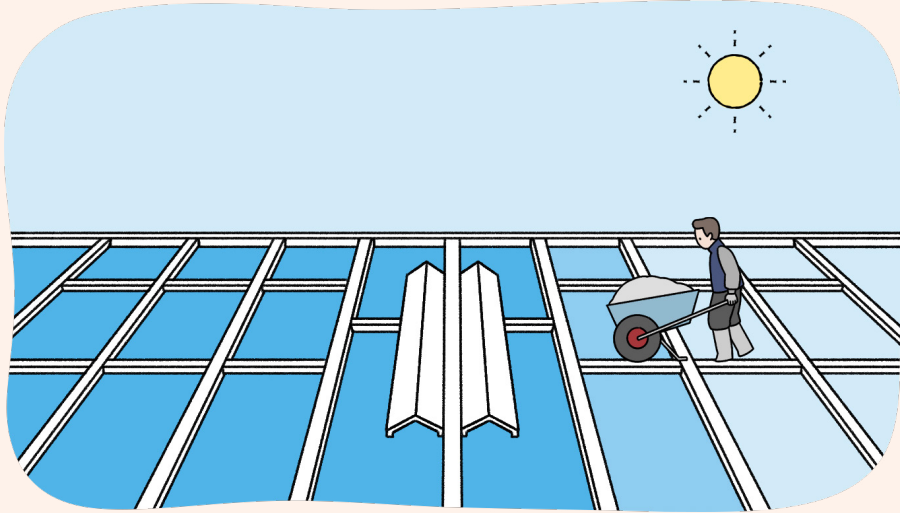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제4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

2016년 지정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끌어들이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어업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전국의 약 79.3%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천일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무자위'가 있으며, 염전에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4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과 함께 제10호 부안 곰소 천일염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모으는 염부



탐색하기

천일염업에 사용하는 어업 도구를 3층 해양관 <우리 삶 속 바다>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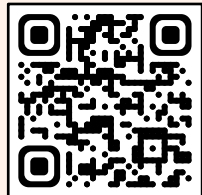


생각 나누기

바다에서 물놀이할 때 바닷물이 입에 닿으면 어떤 맛이 느껴졌나요?



더 알아보기



제9호 울진·울릉 돌곶 떼배 채취어업

2021년 지정



돌곶 떼배 채취어업은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로 미역군락이 있는 바위까지 이동해 돌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어업입니다. 떼배는 수심이 얇은 바다의 암반 지형 작업에 유리합니다. 더불어 울릉도 바다는 물속 투명도(30~40m)가 뛰어나 물속을 들여다보며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 방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울진·울릉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떼배어업 광경



탐색하기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어업 도구를 3층 해양관 <우리 삶 속 바다>에서 만나보세요.



생각 나누기

우리는 생일에 무엇을 먹나요?



더 알아보기



미래 바다



《미래의 바다도시》에서 미래의 바다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구'라고 불릴 만큼 지구에서 가장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를 미래의 중요한 보고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수심 약 2,000m 이상의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전세계 바다의 약 93%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입니다. 심해 탐사는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광물과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새로운 생물 조사, 지구 지질 구조 분석을 위해 잠수정을 활용한 심해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잠수정 VS 유인잠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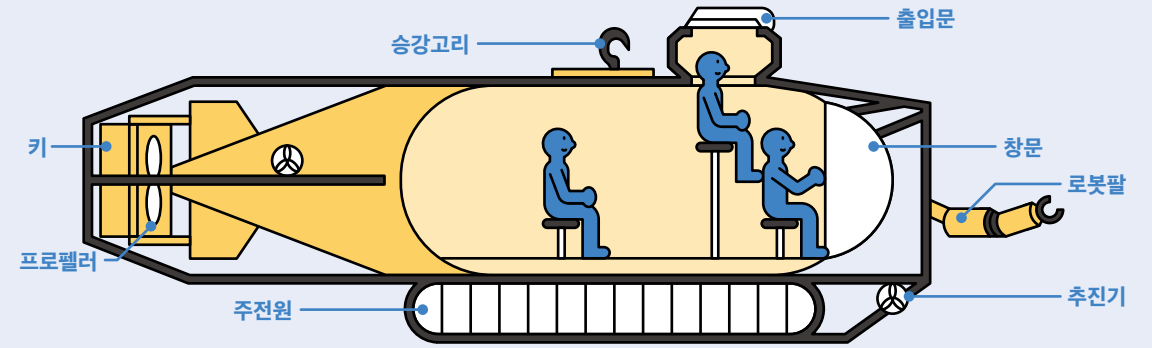
무인잠수정 옥포-6000



유인잠수정 해양 250

'옥포-6000'은 독도와 태평양 해저 광물 자원 조사, '해양 250'은 연근해 수중 연구와 침몰 선박 조사에 이용되었습니다.
 두 잠수정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22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인잠수정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해양 250 내부 구조



탐색하기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유인잠수정인 해양 250을 야외전시실(박물관 2층 밖)에서 만나보세요.



생각 나누기

미래에 바다에서 살게 되면 어떨까요?



더 알아보기



어린이박물관 체험 후, 박물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유용한 관람 정보

어린이박물관 전시 체험 후, 4층 항해관 - 3층 해양관 - 야외전시실 순으로 실물 전시품을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층 수족관에서 오늘 본 것을 마음에 새겨보며 바다멍~ 물멍~을 즐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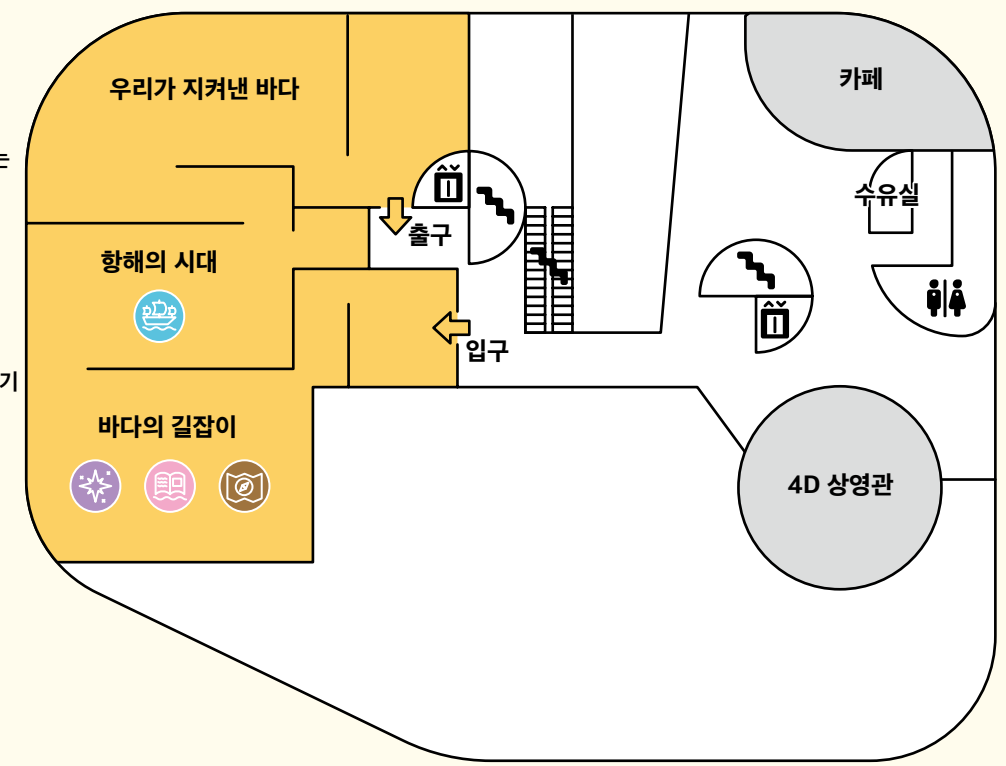
2층



4층

항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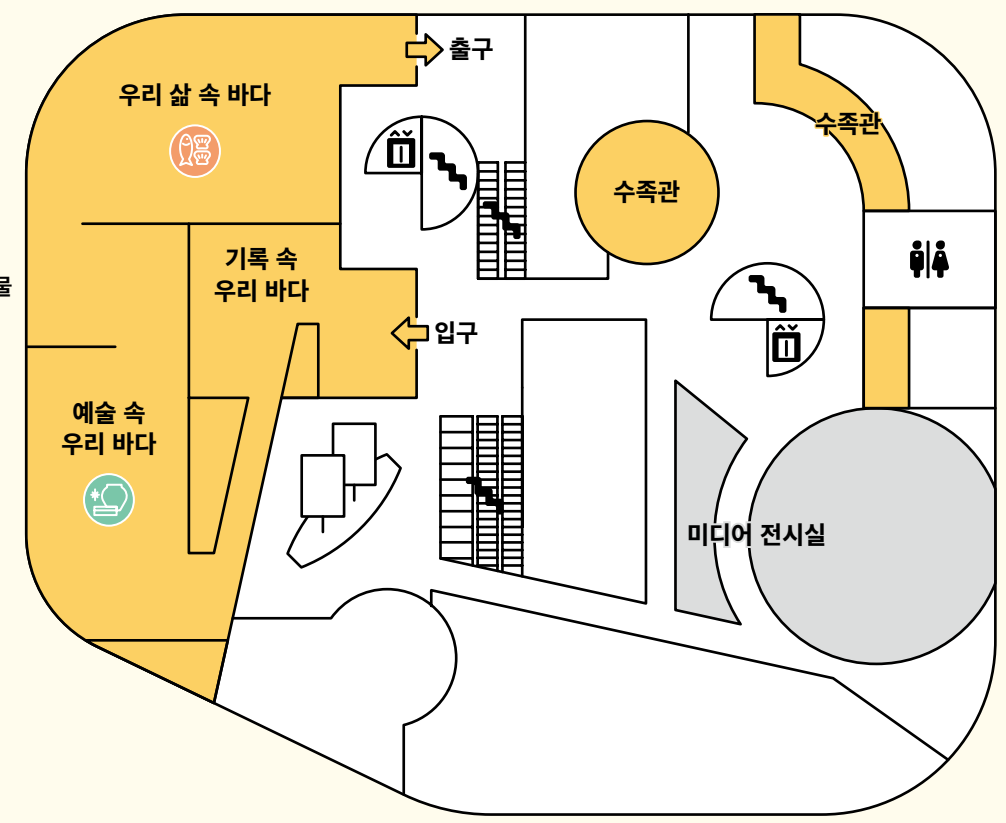
- 세계를 누비는 바다 탐험가
- 별로 바닷길 찾기
- 신비한 세계일주 항해기
- 나는야 해도 제작자



3층

해양관

- 국가중요 어업유산
- 아름다운 우리 바다 보물





탐색하기

어린이가 가장 즐거워했던 어린이박물관 체험은 무엇인가요?



생각 나누기

오늘 어린이와 함께 경험한 박물관은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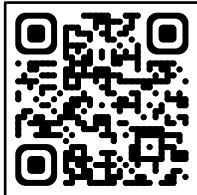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전시실에서 가장 호기심 있어 했던 전시품은 무엇인가요?

슬기로운 학습 활동

어린이와 박물관 체험 후 학습할 수 있는 활동지가 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 교육 > 어린이박물관에서 다운받으셔서
박물관에서 체험했던 것을 집에서도 학습해보세요.



국립해양박물관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입니다.
해양문화유산 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수집, 보존과 연구,
전시와 교육을 통해 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양문화 확산과 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